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미사 독서: 김주현 안토니오, 이연주 안젤라
 다음주 미사 독서: 심윤필 베르나르도, 황권희 클라라
 금주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타
 다음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윌프레드
 금주 미사해설: 최미라 베아트릭체, 윤보연 소화테레사
 다음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윤지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24 일
 봉헌금: \$377
 교 무 금: \$310
 25 일
 봉헌금: \$208
 달력기부금: \$152
 감사헌금: \$100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1 월 1, 27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계시관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1 월 7, 21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8 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택 (1 월 6, 20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새해 아침에 복을 기원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이의 염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과연 어떤 삶을 복 받은 삶이라고 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전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나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것은 행운이나 성공과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느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것, 인간은 하느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축복받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두고 우리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 이유는, 성모님께서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성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Facebook 그룹: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성모 마리아 대축일]

2012 년 1 월 1 일

<제 1 독서> 민수기, 6, 22-27

<제 2 독서> 갈라티아서, 4, 4-7

화답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래들을 이끄시니,
 거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복음 2, 16-21
 그때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오늘의 성가] 시작: 106

봉헌: 99

성체: 100

파견: 107



교황 베네딕토 16 세 성하의 제 45 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요약)

젊은이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교육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인 새해를 맞아, 모든 이에게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며 정의와 평화가 확고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까?“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시편 130(129),6) 더 굳건한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2012 년을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제 45 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젊은이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과 그들의 관심사에 동참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세우기 위한 사회 전체의 첫째 의무입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진리를 찾고 공동선을 수호하며,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이사 42,9; 48,6)을 바라보도록 격려합니다.

평화와 정의에 대한 참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첫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익히는 첫 학교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면서 그 삶의 여정에 더 깊이 동참하고 연륜으로 얻은 경험과 확신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도록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모든 가정과 교육 기관들이 그들의 교육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도록 구체 적인 도움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모든 이의 선의를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하는 투명한 정치상을 보여 주십시오. 젊은이들도 정의와 평화 교육을 비롯한 자신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만 인간 자유의 의미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입니다. 참된 자유는 아무런 제약도 없는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느님을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에 대한 진리와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하고, 양심의 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유는 자연 도덕률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존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올바른 사용은 정의와 평화 증진의 핵심입니다.

자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존재와 생활 방식이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상호 신뢰, 용서를 할 수 있는 힘, 주고받는 사랑, 연민, 희생을 할 각오가 생겨납니다. 이 요소들이 없다면, 평화와 정의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저 빈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평화는 거저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떠맡아야 할 과업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교육하여, 연민, 연대, 협동, 형제애,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을 배워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추구하여야 하는 목표입니다. 미래 세대가 평화의 거래가 되고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회를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려움에 부딪쳐 좌절하지 마십시오. 흔히 가장 쉬운 길로 보이는 그릇된 해결책에 기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투신하십시오. 힘든 일과 희생을 직시하고, 성실과 인내, 겸손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믿으십시오.

바티칸에서, 2011 년 12 월 8 일 교황 베네딕토 16 세

† 공지사항

- 2012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교우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 달력 안 받아 가신 분들은 가져 가세요.
- 교우금 약정 하신 분들은 새해 교우금 카드 받아가시고, 교우금 약정 새로 하실 분들은 미사후 회계에게 말씀해 주세요.
- 1 월 14-15 일(토-일)에 공동체 피정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비용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장소: Schoenstatt Sisters of Mary, W284 N404 Cherry Lane, Waukesha, WI 5318
- 1 월 14 일 미사는 15 일(일) 오후 2 시에 피정 장소인 Schoenstatt Sisters of Mary 에서있습니다.



카톨릭
교리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업적을 돌아보고 이에 감사드리면서 그들이 지금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도우심을 간청했다. 이스라엘의 성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인생의 고비마다 하느님께 기도드렸고, 모세는 이집트 탈출, 시나이 계약, 광야 생활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 늘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도 지상생활을 하시는 동안 항상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마르 14,36)라고 부르면서 기도드렸고, 하느님과 깊이 친밀한 일치와 친교 속에서 살아가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직접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는 반감을 품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위선자들처럼 남에게 보이려 기도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빈 말로 기도하지도 말라고 당부하셨으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올바른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전 생애 동안 아버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고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셨으며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

▶기도의 방법과 자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공동체 모범을 따라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느끼고 뵈으며,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말씀을 건네는 것이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듯이, 더 바른 마음과 자세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은 먼저 하느님 구원 업적과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 또 자신의 소망과 필요와 청원을 말씀드리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 뜻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한다.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말씀을 알아듣고자 온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분 말씀을 행하고자 전 삶의 방향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